

우정성은 대장성에 대해서 전파이용료제도 창설을 위한 준비자금으로서 92년도 예산에서 1억 2,000만엔을 요구하고 있다. 우정성에서는 이 준비자금을 새로운 제도의 홍보비용, 전파이용료를 관리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금후는, 전파이용료징수총액이나 징수의 범위를 둘러싸고 자민당, 민간방송연맹, 일본신문협회, NHK, NTT 등 정책당국 및 대량 전파이용자와의 최종적인 조정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우정성에서는 전파이용료를 면허처리의 신속화, 전파감시의 고도화, 전파자원의 개발 등에 사용할 방침이지만 이러한 용도에 대해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郵政省, WARC-92에 제안할 日本(案)을 外務省에 提出

우정성은 92년 2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WARC-92(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에 제안할 일본(안)을 외무성에 제출하였다. WARC는 주파수할당과 관련된 국가간 회의로서 각국의 전파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ARC-92에서는 FPLMTS(미래 공중육상이동통신), 이동위성, 음성위성방송, 광대역 HDTV 등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할당이 쟁점사안으로 되고 있다. 일본(안)에서는 FPLMTS의 세계공통주파수로서 1.995~2.025GHz 및 2.170~2.200GHz의 계 60MHz, 음성위성방송 2.565~2.625GHz의 60MHz, 이동위성 2.500~2.535GHz 및 2.655~2.690GHz의 계 70MHz, 광대역 HDTV 24.65~25.25GHz의 600MHz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본(안)은 FPLMTS와 광대역 HDTV에 있어서 유럽(안)과 음성위성방송과 이동위성에 있어서 미국(안)과 엇갈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第2種 電氣通信社業者 數, 1, 000個社 돌파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VAN사업자)의 수가 91년 11월말까지 1,000개사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정성은 매월, 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신고상황을 집계하고 있다. 85년 4월에 현재의 사업제도가 발족된 이래 6년 7개월이 경과된 91년 10월말까지 특별 제2종전기통신사업자는 33개사, 일반제2종전기통신사업자는 971개사로, 이를 단순히 합산하면 1,000개사를 초과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특별 및 일반제2종전기통신사업자 모두에 중복해서 신고,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가 11개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수로서는 993개사에 이르고 있다.

91년 11월말까지의 집계에서는 이러한 중복을 제외한 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의 수가 1,000개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경영상태는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회선재판매를 중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 가운데에는 수익성이 낮아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NTT의 망을 제2종전기통신사업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NA나 公專接續, 국제VAN 등의 규제완화가 과제로 되고 있다.

英國 OFTEL장관, 價格上限(price cap)制度 再檢討 日程 發表

지난 11월 4일, OFTEL장관은 1993년 7월에 종료하는 현행의 가격상한규제의 재검토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2년초, 새로운 요금규제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격상한제도의 변경에는 BT 면허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정부방침결정 후, OFTEL장관과 BT간에 개정내용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MMC(독점합병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면허변경을 하게 된다.

獨逸 移動體無線專門委員會, PCN免許에 관한 答申 提出
